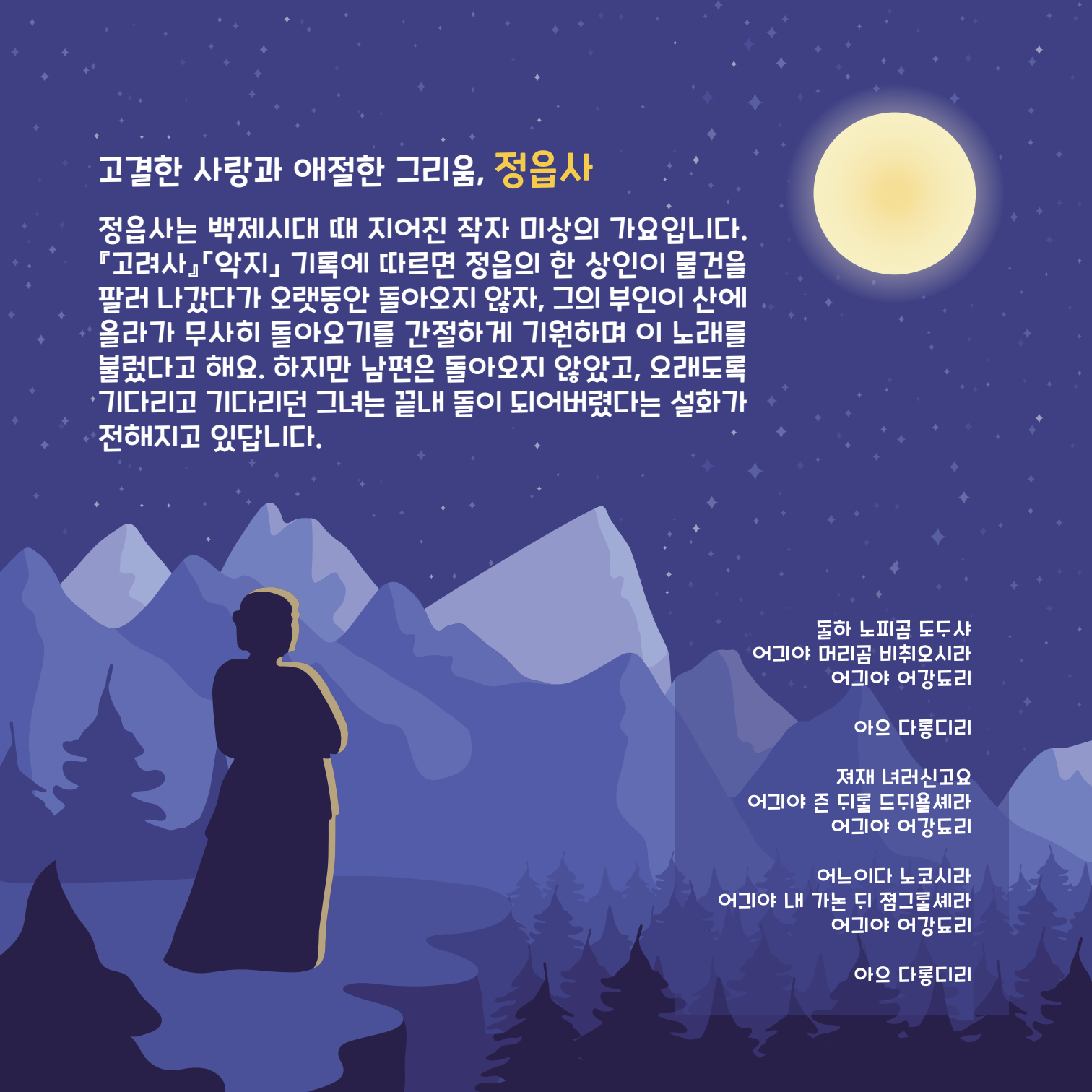
푸르른 5월, 희망의 봄

압화부채 체험방법

정읍시립박물관 문화가있는날

고결한 사랑과 애절한 그리움, 정읍사

정읍사는 백제시대 때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입니다. 『고려사』「악지」 기록에 따르면 정읍의 한 상인이 물건을 팔러 나갔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, 그의 부인이 산에 올라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.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,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는 끝내 돌이 되어버렸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답니다.



돌하 노피곰 도두샤
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
어긔야 어강됴리

아으 다롱디리

져재 녀러신고요
어긔야 즌 ᄃᆡ롤 드ᄃᆡ욜셰라
어긔야 어강됴리

어느이다 노코시라
어긔야 내 가논 ᄃᆡ 졈그ᄅᆞᆯ셰라
어긔야 어강됴리

아으 다롱디리

준비물

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

정읍사 부채 (색상 랜덤), 압화
핀셋, 접착한지, 무광 필름지



집에서 준비해주세요

이쑤시개, 목공용 풀 또는 딱풀





하나

압화를 어떻게 놓으면 예쁠지 생각하면서 부채 위에 올려요

압화를 잘라서 사용해도 예뻐요



둘

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목공용 풀이나 딱풀을 압화에 조금씩 찍어 발라요



셋

핀셋을 이용하여 압화를 부채에 붙여요

압화가 얇으므로 조심해서 집어요



넷

접착한지 또는 무광 필름지 위에 부채를 대고 모양을 따라 연필로 그린 뒤 가위로 오려요

접착한지와 무광 필름지 중 원하는 것을 사용해요



다섯

**접착한지 또는 무광 필름지를 밑부분부터 천천히 붙이고,
윗부분은 커터칼을 이용해 깔끔하게 잘라요**



무광 필름지



접착 한지

완성

꽃바람 불어오는 부채 완성!